

코로나19 이후 울산시 자녀돌봄 실태 및 지원방안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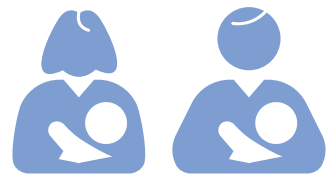
이윤정(울산여성가족개발원 부연구위원)

- 정부의 방역대책과 지원정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특히,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가정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음. 휴교·휴원 및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돌봄 공백 문제는 코로나19와 가족생활에 관한 문제 중 가장 심각한 어려움임.
- 이에 아동의 돌봄 및 생활실태 파악을 토대로 돌봄 공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의 중요성이 부각됨.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돌봄의 형태 변화 및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전국적으로도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대책과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에서도 코로나19 자녀돌봄과 관련된 기초자료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감염위험이 장기화 및 일상화 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하에 울산시 지역사회 포괄적 돌봄서비스 마련을 위해 자녀돌봄 현황의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자녀돌봄 지원방안 체계를 구축해야 함.

① 코로나19 이후 울산시 자녀돌봄 실태

I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2021년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0~13세 자녀를 둔 부모 1,000명
- 조사 기간 : 2021년 7월 22일 - 2021년 8월 4일
- 조사 목적 : 울산시의 코로나19와 자녀돌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울산시에 거주하는 영유아기 및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돌봄 현황 및 돌봄공백, 자녀돌봄의 어려움과 정책요구사항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울산시 돌봄안전망 체계를 발굴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조사 내용
 - 자녀돌봄 실태
돌봄공백, 긴급돌봄, 돌봄 지원제도 및 서비스 이용, 자녀양육의 어려움, 양육 및 업무 스트레스, 가족의 휴직 및 사직 고려여부, 향후 재난 상황의 공적 돌봄서비스 운영의 필요성 및 이용의향 등
 - 코로나19 상황에서 휴원/휴교 시 도움이 되는 자녀양육 서비스 및 지원, 돌봄서비스의 개선사항 및 정책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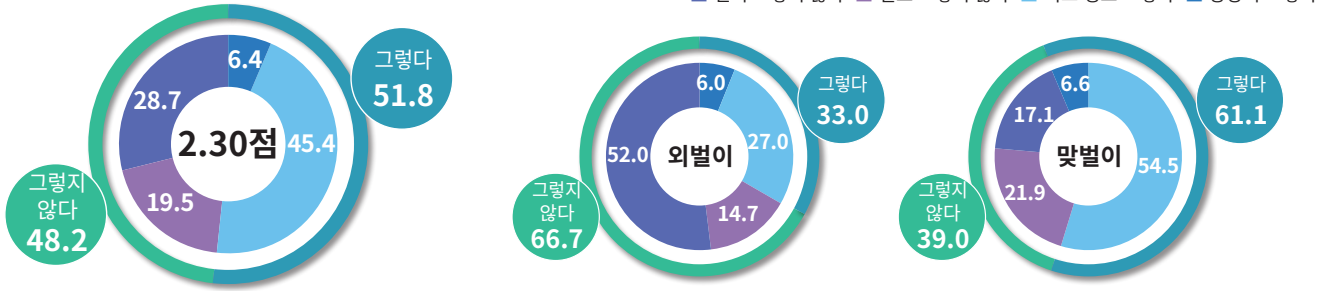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돌봄공백 발생 정도

- 코로나 감염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휴원/휴교 기간 동안 자녀양육에 이전에 없던 돌봄공백이 발생하였는지 살펴보면, 그렇다(어느 정도 그렇다+상당히 그렇다) 51.8%,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48.2%임.
- 맞벌이 유무에 따라 돌봄공백이 발생하였는지 살펴보면, 외벌이 가정에서는 그렇다(어느 정도 그렇다+상당히 그렇다) 33.0%, 맞벌이 가정에서는 그렇다(어느 정도 그렇다+상당히 그렇다) 61.1%로 큰 차이가 나타남.

돌봄공백 발생 정도

(단위: %)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어느 정도 그렇다 ■ 상당히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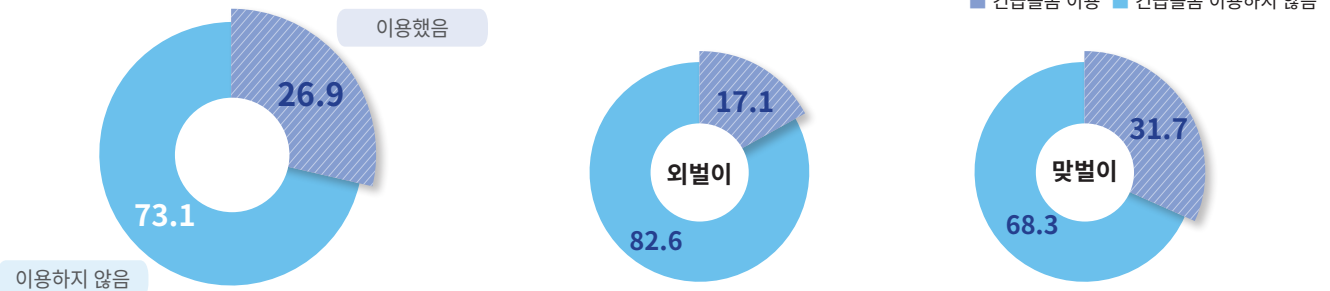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 이후 긴급돌봄 이용 여부 및 이유

-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 1년 동안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 대한 공식적인 휴원/휴교 조치가 이루어지고,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제공된 긴급돌봄을 이용했는지 살펴보면, 전체의 26.9%가 이용함.
- 맞벌이 유무에 따라 긴급돌봄을 이용했는지 살펴보면, 외벌이 가정의 이용률은 17.1%이며 맞벌이 가정의 이용률은 31.7%로 나타남.

긴급돌봄 이용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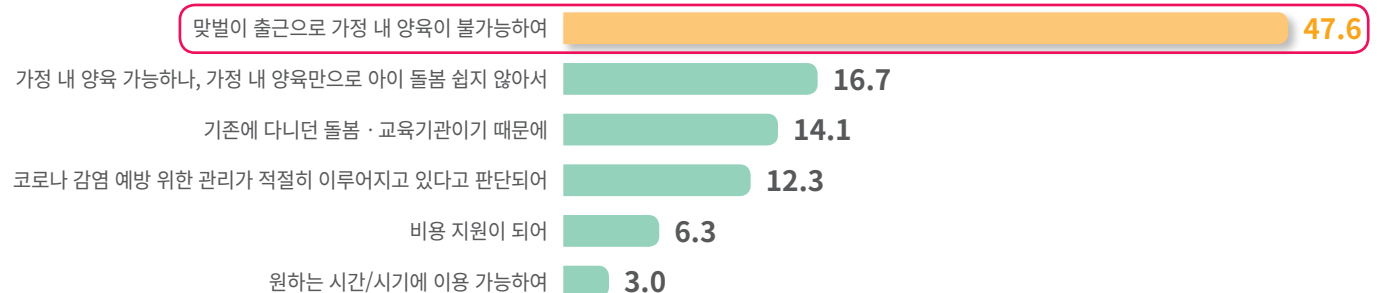
■ 긴급돌봄 이용 ■ 긴급돌봄 이용하지 않음



-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 이유는 '현재 맞벌이 출근으로 가정 내 양육이 불가능하여'가 47.6%로 가장 높았고, '가정 내 양육을 할 수 있으나, 가정 내 양육만으로 아이(들)를 돌보는게 쉽지 않아서'(16.7%), '기존에 다니던 돌봄·교육기관이기 때문에'(14.1%),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12.3%) 순임.

긴급돌봄 이용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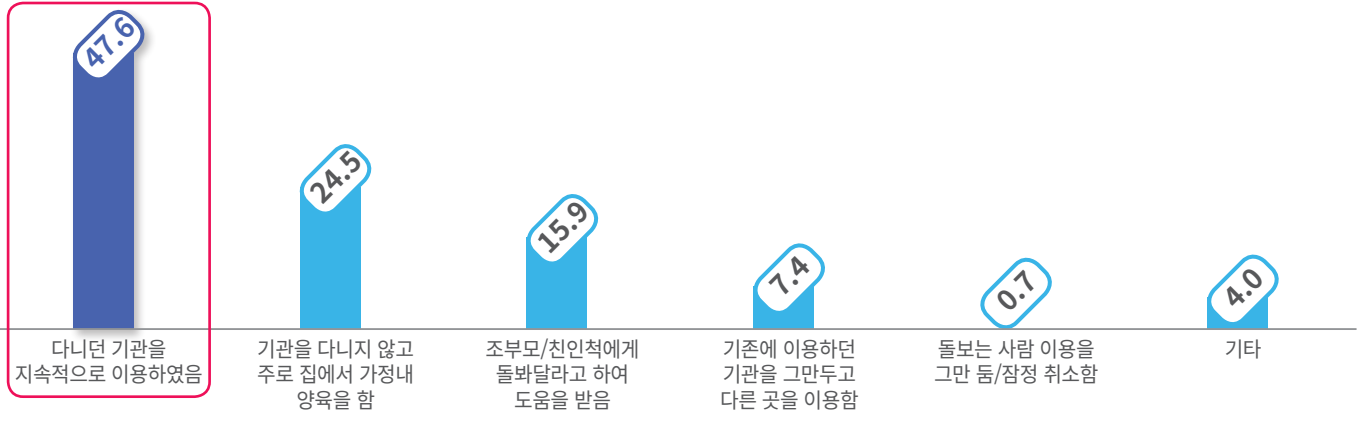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으로 돌봄기관 및 서비스 이용 변화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자녀의 기관 및 서비스 이용에 변화는 주로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면, '다니던 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였음'이 47.6%로 가장 높았고, '기관을 다니지 않고, 주로 집에서 가정내 양육을 함'(24.5%), '조부모/친인척에게 돌봐달라고 하여 도움을 받음'(15.9%), '기존에 이용하던 기관을 그만두고 다른 곳을 이용함'(7.4%) 순임.

돌봄기관 및 서비스 이용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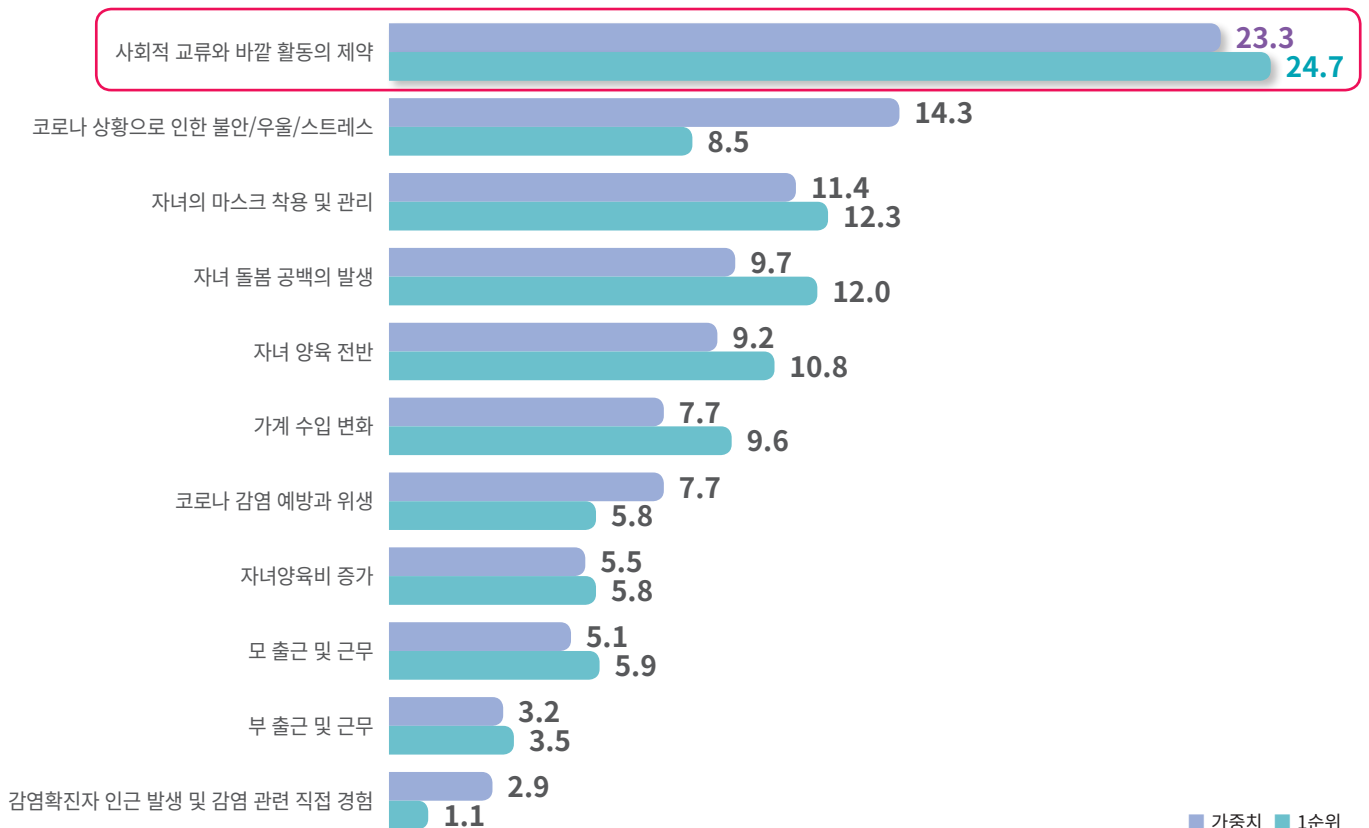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자녀양육가구의 어려움

- 코로나19로 인한 자녀양육가구의 가장 큰 어려움의 가중치 비율을 살펴보면, '사회적 교류와 바깥 활동의 제약'이 23.3%로 가장 높았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불안/우울/스트레스'(14.3%), '자녀 마스크 착용 및 관리'(11.4%), '자녀돌봄 공백의 발생'(9.7%) 순임.

자녀양육가구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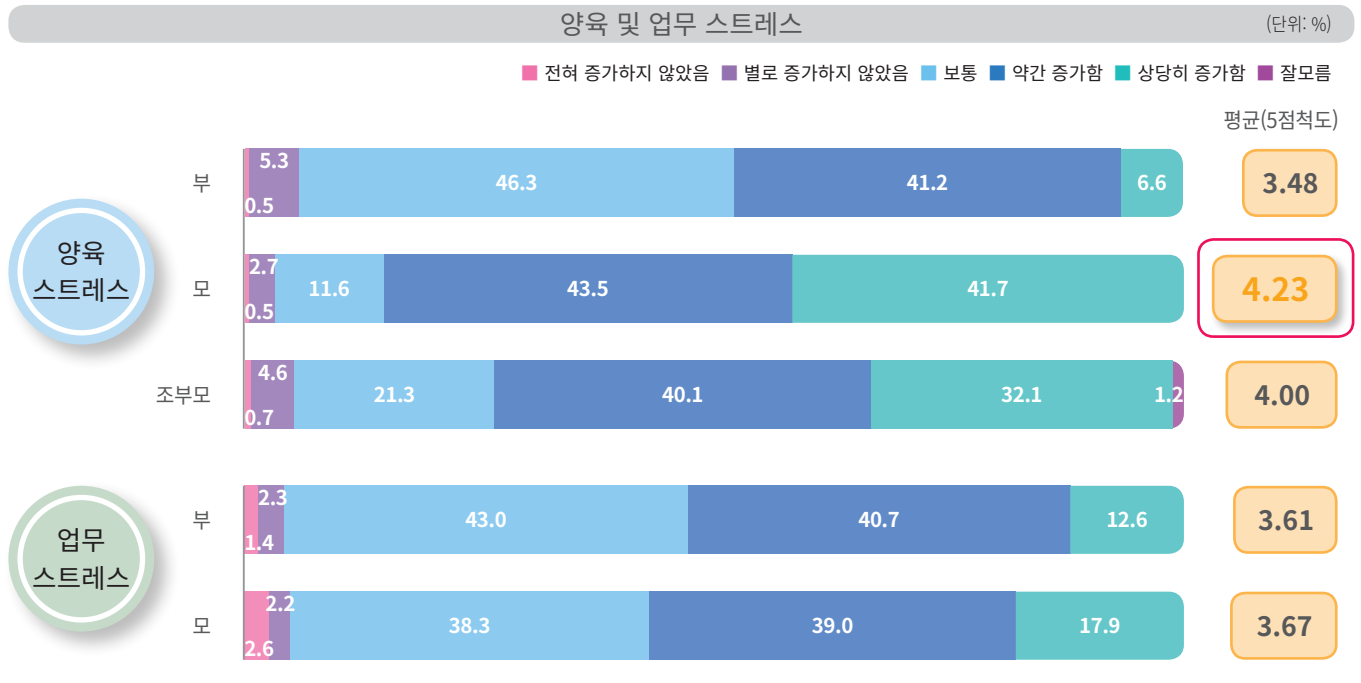
(단위: %)



■ 가중치 ■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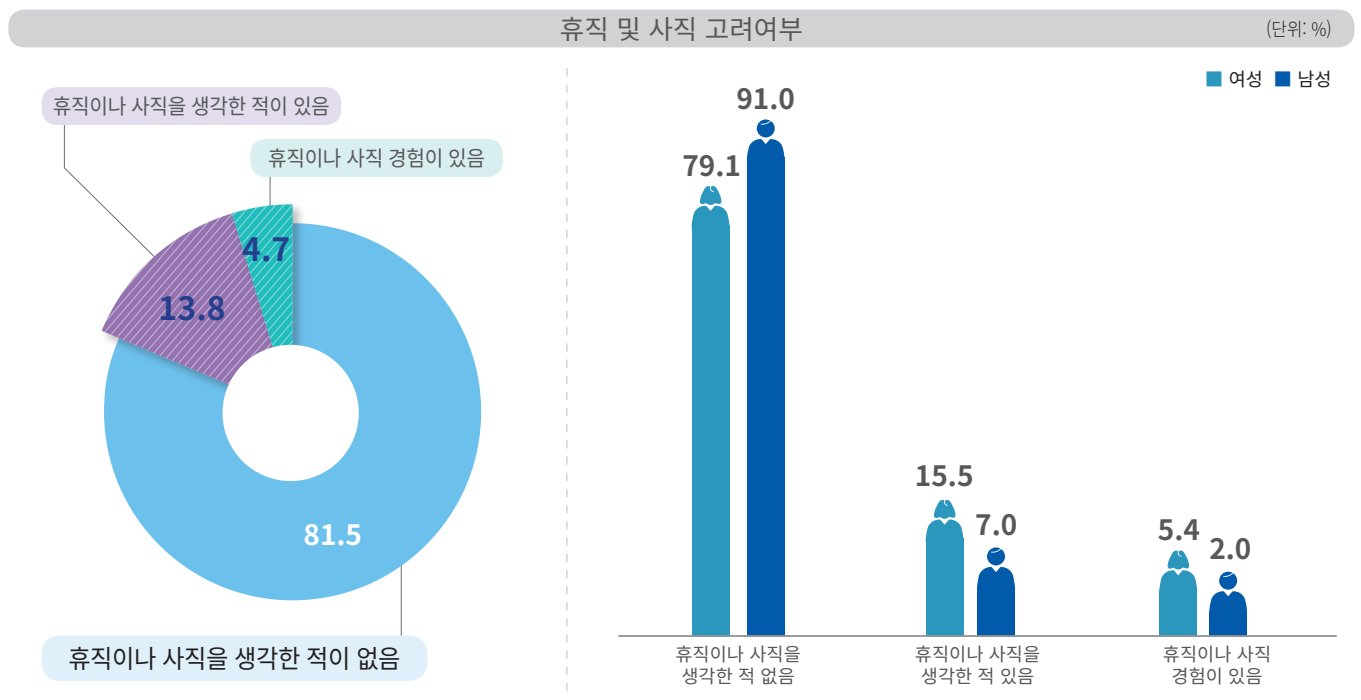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양육 및 업무 스트레스 변화

- 양육스트레스와 업무스트레스의 코로나19 상황 전후 변화를 살펴보면, 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4.23점으로 가장 높았고,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4.00점), 부의 양육 스트레스(3.48점) 순이며, 모의 업무 스트레스(3.67점)가 부의 업무 스트레스(3.61점) 보다 높음.



코로나19로 인한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 가족의 휴직 및 사직 고려 여부

-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 가족 중에서 휴직이나 사직을 생각하거나 휴직 또는 사직을 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면, '휴직이나 사직을 생각한 적 없음'이 81.5%로 가장 높았고, '휴직이나 사직을 생각한 적 있음'(13.8%), '휴직이나 사직 경험이 있음'(4.7%) 순임.
- 성별로는 여성(15.5%)이 남성(7.0%)에 비해 휴직이나 사직을 생각한 적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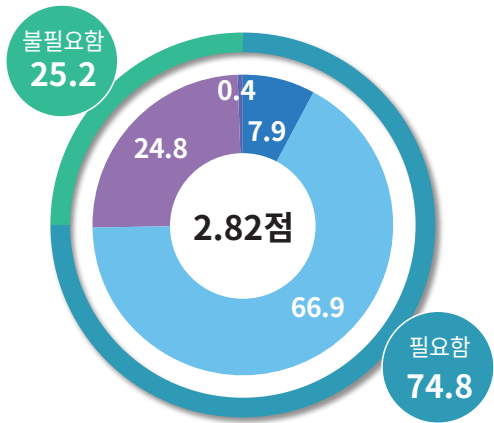
향후 재난 상황의 공적 돌봄서비스 운영의 필요성 및 이용의향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공적 돌봄서비스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보면 필요함(필요함+매우 필요함)이 74.8%, 불필요함(매우 불필요함+불필요함) 25.2% 순임.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보면 의향 있음(이용할 의향 있는 편임+매우 이용할 의향 있음)이 67.0%, 의향 없음(전혀 이용할 의향 없음+이용할 의향 없는 편임) 33.0%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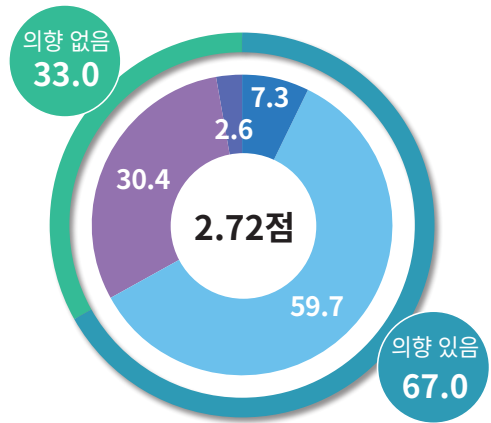
돌봄서비스 운영의 필요성 (단위: %)

■ 매우 불필요함 ■ 불필요함
■ 매우 필요함 ■ 필요함



돌봄서비스 운영의 이용의향 (단위: %)

■ 전혀 이용할 의향 없음 ■ 이용할 의향 없는 편임
■ 매우 이용할 의향 있음 ■ 이용할 의향 있는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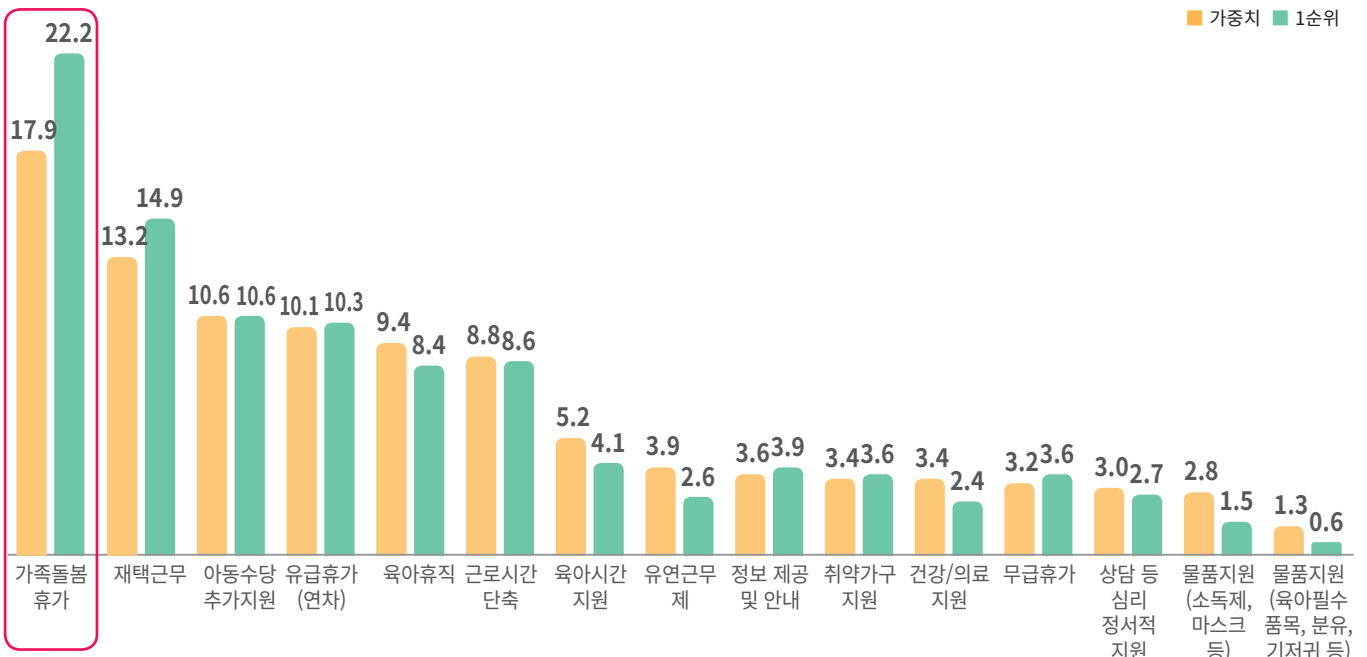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에서 휴원/휴교 시 도움이 되는 자녀양육 서비스 및 지원

- 코로나19 상황에서 휴원/휴교 기간 동안 자녀양육(전반)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의 가중치 빈도를 살펴보면, 가족돌봄휴가가 17.9%로 가장 높았고, 재택근무(13.2%), 아동수당 추가지원(10.6%), 유급휴가(10.1%) 순임.

휴원/휴교 시 도움이 되는 자녀양육 서비스 및 지원

(단위: %)



I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원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의견

-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과 서비스는 ‘근로시간 단축’인 것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탄력근무제, 재택근무, 육아휴직 의무화 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돌봄휴가, 유급휴가를 직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자녀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나타남. 구체적으로 돌봄기관의 다양성, 이용 시간과 이용대상 확대, 지역내 자율 돌봄교실 활성화 등의 내용이 제시되었음. 또한 돌봄 인력에 대한 전문성 요구와 대상별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급 확대 의견도 나타남.
-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양육비, 의료비, 아동수당 인상 및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정에만 있는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② 코로나19 이후 자녀돌봄 지원방안

- 향후 울산지역 돌봄체계를 개선하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 코로나19 이후 자녀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은 공적돌봄 영역의 확대,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 일·생활 균형 문화조성을 통한 가족 내 돌봄 활성화, 가족유형별 맞춤형 양육서비스 지원임.

